

# 脂漏 皮膚炎에 關한 文獻的 考察

姜暲垓\* · 金中鎭\* · 蔡炳允\*

## I. 緒 論

脂漏 皮膚炎은 피부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두피, 안면(눈썹, 안검, 입술, 귀, 비, 구순 부위), 흉골 부위, 액와부, 유방하부, 배꼽, 서혜부, 둔부에 호발하는 피부질환이며<sup>2)</sup>, 연령 층에 따라 각기 다른 임상 증상을 나타낸다.<sup>28)</sup>

이 질환의 특징은 건성 혹은 습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는 인설이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황색 반을 형성하며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 하고 다소 소양감을 동반한다.<sup>3)</sup>

원인은 不明이나 체질설, 세균 감염설, 내분 비설, 정신적인 원인설, 음식물과의 관련성 등이 있으며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sup>1)</sup>

東洋醫學에서의 白屑風은 熱性 體質의 사람이 風邪의 침입을 받아 발생하며<sup>1) 20) 25) 27)</sup> 주된 증상은 머리에서 白屑이 생기고 白屑이 탈락하고 가렵다.<sup>10) 11) 15) 22) 23) 24)</sup> 面游風은 陽明胃經에 濕熱이 壅結한데 風邪의 침입을 받아 발생하며<sup>27)</sup> 주된 증상은 얼굴과 눈이 붓고 瘡이 생기고 가렵고 피부가 건조하고 白屑이 생기고 심하게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이 흐르고 아프다.<sup>14) 20) 27)</sup>

脂漏 皮膚炎 中에서 유아기, 소년기의 증상과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의 頭部 증상은 두피에서 인설이 발생하고 가렵다. 이는 白屑風의 症狀과 유사하다.

脂漏 皮膚炎 中에서 소년기의 안검염과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의 얼굴증상은 다양한 정도의 홍반이 생긴 눈꺼풀과 협부, 코, 전두부에 구진성 발진이며 코와 협부 사이의 지속성 홍반이다. 이는 面游風의 症狀과 유사하다.

脂漏 皮膚炎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부과 질환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韓方 治療를 白屑風과 面游風에서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脂漏 皮膚炎, 白屑風, 面游風과 關聯된 28種의 東西洋文獻을 研究, 檢討한 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資料 및 方法

### 1. 資 料

脂漏 皮膚炎과 白屑風·面游風과 關聯된 東西洋의 문헌 28種을 선정하여 서로 比較 및, 原因, 症狀, 治療 등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 검토하였다.

### 2. 方 法

1) 지루 피부염의 원인, 증상, 치료 등을 調査 정리하였다.

2) 東洋醫學的으로 白屑風과 面游風에 관한 문헌을 시대순으로 조사 정리하였다.

3) 지루피부염과 白屑風·面游風의 症狀을 비교 검토하였다.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教室

4) 白屑風·面游風の 원인을 분류하고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5) 白屑風·面游風에 사용된 약제를 處方, 單方, 外用藥으로 분류하여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 Ⅲ. 資 料

#### A. 西洋醫學的인 觀察

##### 1. 原因<sup>6)</sup>

지루 피부염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병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피지의 분비 과다가 병의 원인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로 질적인 또는 양적인 피지 분비의 이상은 증명된 바 없다. 단지 임상적으로 번들번들(greasy)한 인설(scale)이 나타나는 것은 피지가 인설중에 과다하게 축적되기 때문이다.

지루 피부염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적인 소인은 과거부터 자주 강조되어 왔다. 지루 피부염에서는 상피의 turnover가 다소 증가되어 있으나 건선의 경우보다는 경미하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피부의 상주 진균의 일종인 pityrosporum ovale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시사되고 있으나 지루 피부염과의 확실한 원인 관계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지루 피부염은 때로 파킨슨병, 일측성 척수 공동증(unilateral syringomyelia)등과 동반되어 신경과의 관련이 추측되기도 하는데 때때로 정신적인 긴장에 의하여도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 2. 症 狀<sup>26)</sup>

###### (1) 유아기(Cradle cap:乳癩)

보통 유아들은 頭項部의 두피에 번들 번들한 인설이 달라 붙어 있다. 인설은 쌓여서

두꺼워지고 두피에 더욱 단단하게 달라 붙고 염증이 동반된다. 이차적으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 (2) 소년기(Tinea amiantacea and Elepharitis:석면상 버짐과 안검염)

석면상 버짐은 원인 불명의 특징적인 발진이 있다.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의 어머니들은 종종 유아기에 乳癩가 있었다고 회상한다. 몇몇 저자들은 석면상 버짐을 습진 또는 건선의 한 형태라고 믿는다. 조밀한 한개 혹은 여러 개의 인설판(patch)이 두피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부모들이 일시적인 탈모나 특징적인 크고 달걀 모양의 유백색의 인설이 두피와 머리털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여러달 지속된다. 인설은 머리털에 붙어 있다가 성장하는 머리털에 의해 잡아 당겨진다. 이것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속눈썹에 붙어 있는 백색의 인설과 다양한 정도의 홍반이 생긴 눈꺼풀이 지루 피부염의 특징이다. 이 질환은 약간의 불쾌감이 있고 미관상 흉하다. 여러해 계속되며 치료에도 저항한다.

###### (3) 청장년기(Classic seborheic dermatitis:전형적인 지루 피부염)

대부분의 지루 피부염 환자들은 얇고 희고 건조한 인설이 두피에 있고 약간의 소양감을 주기적으로 경험한다. 이것은 비듬이다. 환자들은 이번 상태를 건조한 두피 탓으로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머리감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머리감는 것을 피하면 인설이 쌓여 염증이 생긴다. 얇고 건조하고 회거나 노란 인설은 염증의 기저부에 있다. 인설과 염증의 분포는 피지의 분비가 많은 곳(두피, 두피 가장자리, 눈썹, 눈꺼풀, 비구순 주름 부위, 외이도, 귀뒤편 주름부위, 가슴 가운데)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액와부, 유방 하부, 서혜부, 배꼽 등에서는 덜 발생한다. 귀부위의 인설은 습진이나 진균 감염으로 오진될 수 있다. 지루 피부염이 한번 생기면 다양한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노년의 환자들, 특히 오래 누워만 있거나, 파킨슨씨 병과 같은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은 더 만성화되고 병변이 더 넓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인설은 더 넓게 퍼지고 두껍고 단단히 붙어 있다.

### 3. 鑑別診斷<sup>23)</sup>

건선은 홍반, 두꺼운 인설, 인설을 제거할 경우 출혈점(bleeding point)이 생기고 전두부, 두피 가장자리에 호발하여 탈모와 소양감이 없고 조갑의 변화와 같은 다른 부위의 특징적인 병변으로 지루 피부염과 감별할 수 있다. 이증(pediculosis)을 수반한 두피의 농가진과 간찰부의 역건선(inverse psoriasis)도 감별해야 하며 그외에 감별할 질환으로는 외이도염, 안검염, 구각 미란증(perleche), 사지의 화폐상 습진, 체부 백선(tinea corporis), 장미색 비강진 등이 있다.

### 4. 治療<sup>24)</sup>

지루 피부염에서는 특히 두피의 치료가 중요하다. 두피는 일주일에 2~3회 Selenium sulfide, tar, zinc pyrithione, resorcin을 함유한 세척제로 세척하면 효과적이며 스테로이드 제제의 로션 혹은 용액, gel을 두피에 바르는 것도 효과적이다. 모발이 없는 부위는 스테로이드 크림이 가장 효과적이며 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함유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나 안면의 장기적인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은 이

의 부작용인 혈관 확장, 피부 위축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성 질환이므로 스테로이드제의 전신투여는 원칙적으로 삼가야 한다.

## B. 東洋醫學의인 관찰

### 1. 普濟方<sup>25)</sup>

夫頭生白屑 不問冬夏 令人搔痒 世呼爲頭風 此本於肺熱也 其氣上衝頭項(中略) 肺熱則薰蒸而多白屑 復以風熱鼓作 故痒而喜搔

方  
旱蓮膏：治頭風白屑 長髮令黑

蓮子膏：治頭風白屑 長髮令黑

甘松膏：治頭中風痒白屑

龍腦膏：治頭風痒白屑 長髮令黑

松脂膏：治頭風痒白屑 長髮令黑

生髮膏：治頭中風痒白屑

長髮膏：治頭風白屑風痒

白屑膏：治生髮頭風痒

塗項膏：治頭風痒白屑

菊花湯：治頭風白屑沐頭

防風荆芥散：治諸風 及沐髮未乾 致頭皮腫痒 多生白屑

蔓荆實膏：治頭風白屑 頭痒髮落 頭旋妨悶

猪鬃根湯

龍腦丸：治諸風白屑 長髮令黑

沐頭湯：治肺勞熱 不問冬夏老少 頭生白屑 搔痒不堪 然肺爲五臟之蓋 其勞損傷肺 氣衝頭項 致使頭痒 多生白屑 搔之隨手起人多患此 皆從肺來 世呼爲頭風也。

天麻餅：治諸風 頭多白屑

楮實方：治頭風白屑 如麩糠

鷄子沐湯：治頭風 搔之白屑起

白鴿方：主頭極痒 不痛生瘡

### 2. 丹溪心法附餘<sup>26)</sup>

頭痒風屑髮黃 用大黃酒浸炒 爲末 茶調服

### 3. 濟世全書<sup>15)</sup>

治頭風屑極痒 用藜蘆根不拘多少爲末洗頭 避風候半乾用藥搽擦在頭却束髮緊縛 一日夜即安

### 4. 醫學入門<sup>22)</sup>

風屑 是濕熱

頭上 風屑白屑極痒 宜內服單苦參丸 下虛者 薄荷茶 外用藜蘆煎湯 避風洗頭 候稍乾 分開頭髮 仍以藜蘆末搽頭皮上 絹帕 緊縛兩日夜 頭風 亦效

### 5. 證治準繩<sup>21)</sup>

頭風屑 羅謙甫云肝經風盛木自搖動尚書云滿招損老子云物壯則老故木陵脾土金來剋之是子來爲母復仇也使梳頭有雪皮見肺之證也肺主皮毛大便實瀉青丸主之虛者人參消風散主之 萬病紫苑丸治頭多白屑每服三丸薑湯下 按上治法必有風熱上攻頭目眩痛諸證而後用之若止是白屑但宜白芷零陵香之屬外治而已

### 6. 東醫寶鑑<sup>11)</sup>

頭生白屑肺之證也肺主皮毛故因風熱而頭皮燥痒生白屑消風散主之 頭生白屑極痒藜蘆爲末先洗頭候欲乾時取末搽之令入髮至皮方得 緊縛兩日夜即不燥痒如不效再用之先以藜蘆煎湯沐頭然後搽藥尤妙 又方白芷零陵香爲末搽頭候三五日 夫白屑附二三特效

頭風白屑 瓦松曝乾燒 淋熱洗頭六七度差 態腦髓作油摩頭可去白屑

### 7. 外科正宗<sup>25)</sup>

白屑風多生於頭，面，耳，項髮中，初起微痒，久則漸生白屑，疊疊飛起，脫之又生，此皆起於熱體當風，風熱所化，治當消風散，面以玉肌散擦洗，次以當歸膏潤之。發中作痒有脂水者，宜翠云散搽之自愈。祛風換肌丸，潤肌膏

### 8. 外科大成<sup>16)</sup>

白屑風生髮內及面目耳項。初起微痒。久生白屑。疊疊飛起。脫之又生。由肌熱當風。風熱之所化也。宜祛風換肌丸。玉肌膏。潤肌膏

### 9. 醫宗金鑑<sup>20)</sup>

白屑風頭與面，燥痒日久白屑見。肌熱風侵成燥化，換肌潤肌醫此患。

[注]此證初生友內，延及面目，耳項燥痒，日久飛起白屑，脫去又生。由肌熱當風，風邪侵入毛孔，郁久燥血肌膚失養，化成燥證也。宜多服祛風換肌丸。若肌膚燥裂者，用潤肌膏擦之甚效

面游風燥熱濕成，面目浮腫痒虫行，膚起白屑而痒汲，破津黃水津血疹

[注]此證生干面上，初友面目浮腫，痒若虫行，肌膚干燥，時起白屑。次後極痒，抓破，熱濕盛者津黃水，風燥盛者津血，痛楚難甚。由平素血燥，過食辛辣厚味，以致陽明胃經濕熱受風而成。痒甚者，宜服消風散，痛甚者，宜服黃連消毒飲，外扶摩風膏緩緩取效

### 10. 瘍醫大全<sup>14)</sup>

白屑風

陳實功曰白屑風多生於頭面耳項髮中初起微痒久則漸生白屑疊疊飛起脫之又生此皆起於熱體當風風熱所化治當消風散玉肌散次以當歸膏潤之髮中作痒有脂水者宜楊梅瘡門中翠雲錠搽之澄日白屑風用厚朴或桑葉煎湯洗之即愈

頭生白屑及肝經風盛也 山豆根浸油塗之或研細以乳汁調塗

又方 白芷 零陵香 研末浸香油塗之候三五日竟去不過二三次永不再發

祛風換肌丸

面遊風毒

王肯堂曰面遊風毒此積熱在內或多食辛辣厚味或服金剛劑太過以致熱壅上焦氣血沸騰而作屬足陽明胃經初覺微痒如蟲蟻行搔損則成瘡楚難經

心法日此症生於面上初發面目浮腫瘡若蟲行肌膚乾燥時起白屑細如魚鱗次後極痒抓破濕熱盛者津黃水風燥者津血痛楚難堪者皆由平素血燥過食辛辣厚味以致陽明經濕熱受風而成痒甚者宜消風散甚者宜服黃連消毒飲外搽摩風膏

### 11. 醫宗損益<sup>10)</sup>

頭生白屑 綱目肺主皮毛因風熱而燥痒生白屑消風散入門藜蘆爲末先洗頭取末摻之或以藜蘆煎湯沐頭

### 12. 驗方新編<sup>26)</sup>

頭生白屑痒極難忍 藜蘆末煎湯洗頭半乾時再藜蘆末摻上令入皮內用布紮緊數日即愈

又方 桑枝燒灰淋水洗甚效

又方 王不留行 白芷 研末乾摻一夜梳去即愈

### 13. 萬病醫藥顧問<sup>27)</sup>

#### 白屑風

#### [病源]

肌熱當風 肌熱之人 復大醉後 汗出當風而臥 風邪侵入毛孔 盍久血燥 肌膚失養 飛起白屑 脫去又生 是謂白屑風病

#### [病狀]

肌膚飛起白屑 白屑風病初生髮內 漸延及面目耳項 燥痒日久 飛起白屑 脫去又生

#### [變證]

延及遍身 白屑風病失治 其風深伏不去 血分益燥 肌膚益枯 漸漸由面目耳項 延及遍身 飛起白屑 脫去又生 燥痒難忍 久久不愈 殊爲困若

#### [療法]

① 肌膚飛起白屑之療法 白屑風病初生髮內 漸延及面目耳項 燥痒日久 飛起白屑 脫去又生 宜多服祛風換肌丸 若肌膚燥裂者 用潤肌膏擦之 甚效

② 延及遍身之療法 白屑風病失治 其風深伏不去 血分益燥 肌膚益枯漸漸由面目耳項 延及遍身 飛起白屑 脫去又生 燥痒難忍 久久不愈 殊爲困

若 速以潤肌膏擦之 肌膚即潤澤而痒 殊有神效

#### 面遊風

#### [病源]

過食辛辣 血燥之人 復過食辛辣香燥 膏粱厚味 陽明胃經 濕熱壅結 復受風邪 血中益燥 不能榮養肌膚 生於面上 肌膚乾燥 時起白屑 是謂面遊風病

#### [病狀]

面目浮腫 面遊風病生於面上 初發面目浮腫 痒若蟲行 肌膚乾燥 時起白屑 次後痒極抓破 熱濕盛者 津黃水 風燥盛者 津血水 痛楚難忍

#### [變證]

肌膚燥裂 面遊風病失治 其風深伏不去 痒極難忍 肌膚燥烈 甚且抓破 濕熱盛者 時津黃水 風燥盛者 時津血水 痛楚難言

#### [療法]

① 面目浮腫之療法 面遊風病生於面上 初發面目浮腫 痒若蟲行 肌膚乾燥 時起白屑 次後痒極抓破 熱濕盛者 津黃水 風燥盛者 津血水 痛楚難忍 痒甚者 宜服消風散 痛甚者 宜服黃連消毒飲 外俱宜抹摩風膏 緩緩取效

② 肌膚燥裂之療法 面遊風病失治 其風深伏不去 痒極難忍 肌膚燥烈 甚且抓破 濕熱盛者 時津黃水 宜抹摩風膏 風燥盛者 時津血水 痛楚難言 宜擦潤肌膏 甚效

### 14. 東洋醫藥原理<sup>28)</sup>

#### 頭生白屑

머리에 흰비듬 같은 것이 發生하는 것이니 血熱로 인하여 風邪를 發生하기 때문이라 한다.

藜蘆末의 煎湯으로 씻되 반쯤 마르면 藜蘆末을 뿌리고 수건으로 하루 저녁 잡아 매둘 것이니, 몇번 繼續하면 治療된다 하였다.

#### 消風散

### 15. 袖診經驗神方<sup>29)</sup>

頭生白屑 內服天麻消風散 外用白芷 零陵香 等分末摻頭

瓦松 曝乾燒灰 淋汁熱水 洗頭類類差

王不留行 白芷 研末乾摻一夜 梳去即愈

#### 16. 漢方醫學指南<sup>5)</sup>

或頭生白屑 消風散

#### 17. 診療要鑑<sup>2)</sup>

頭生白屑證

原因：頭生白屑證은 肺熱에 起因된다.

證治：肺는 皮毛를 主管하므로, 風熱로 因해서 頭皮가 燥痒하며 白屑이 생기는 바, 消風散으로 主治한다.

#### 18. 中醫外科學<sup>12)</sup>

定義 白屑風是一種皮膚油膩，搔痒潮紅，或起白屑的一種慢性皮膚病

特点 皮損形態多種多樣，干性者以潮紅脫屑爲主，濕性者紅斑糜爛，流滋，有油膩性脫屑和結痂，玫瑰糠疹型者，有圓形，橢圓形紅斑，伴有油膩性脫屑

病因病理

##### 一. 風熱血燥

風熱之邪外襲，郁久則使血燥，陰血不足亦能生風，風燥熱邪蘊阻肌膚，肌膚失去濡養，以致皮膚粗糙，干燥者爲多，表現以干性型爲主

二. 脹胃濕熱，由于過食肥肉油膩，辛辣酒類等，以致脹胃運化失常，生濕生熱，濕熱蘊積肌膚而成，表現以濕性型，玫瑰糠疹型爲主

臨床表現

皮損形態多樣，干性型爲大小不一的斑片，基底微紅，上有彌漫而勻粉狀的干燥性脫屑，在頭皮部可堆疊很厚，梳髮或搔抓時易干脫落，往往毛髮干枯，伴有脫髮

濕性型多爲紅斑，糜爛，流滋，有油膩性的脫屑和結痂，常有臭氣，在耳后和鼻部可有皸裂，眉毛往往因搔抓斷而稀疏，病變主要在頭面部的眉

弓，鼻唇溝，耳前後，頸後，背部，腋窩等處常自頭皮開始，向下蔓延，重者泛發全身

玫瑰糠疹型表現爲圓形，橢圓形或不規則形的紅色斑片，上有油膩性脫屑 中心皮膚有時正常 主要分布在胸背，肩胛和腹股溝有時糜爛流滋而類似濕性型的表現，同時在耳廓內有油膩性脫屑

[治療]

[內治]

辨證施治

1. 干性型：養陰清熱化濕，常用藥物如：生地，玄參，麥冬，生石膏 蛇舌草，生山查，側柏葉，土大黃，車前草，虎杖

2. 濕性型：消熱化濕通腑，常用藥物如：茵陳，生山梔，黃芩，黃柏，生大黃，蛇舌草，生苡仁，車前草，若參片，生甘草

3. 玫瑰糠疹型：上二方中加龍膽草，胡黃連

1. 面部用痤瘡洗劑，或顛倒散洗劑外搽

2. 濕性型和玫瑰糠疹型用黛膏搽後，撲三石散

#### 19. 實用中醫外科學<sup>13)</sup>

白屑風

病因病机

由于肌熱當風，風邪侵入毛孔，郁久血燥，肌膚失養，化成燥症所致

[治療]

一. 內治

祛風清熱，養血潤燥，方以祛風換肌丸加減

二. 外治

(一) 皮膚干燥用潤肌膏

(二) 面部油膩用顛倒散劑外搽

面游風

病因病机

一. 風熱血燥 風熱之邪外襲，郁久則使血燥，陰血不足亦能生風，風燥熱邪蘊阻肌膚，肌膚失去濡養，以致皮膚粗糙，干燥者爲多，表現爲干性形爲主

二. 脹胃濕熱 由于過食肥肉油膩, 辛辣酒類等, 以致脹胃運化失常, 生濕生熱, 濕熱蘊積肌膚而成, 表現為濕性型, 玫瑰糠疹型為主

[治療]

中醫外科學科 同一(白屑風)

20. 中醫外科學<sup>17)</sup>

白屑風

病因病機

由于肌熱當風, 風邪侵入毛孔, 郁久燥血, 肌膚失養, 化成燥証所致

[治療]

一. 內治 宜祛風潤燥, 可用祛風換肌丸

二. 外治 宜外搽潤肌膏

21. 中醫外科學<sup>18)</sup>

脂溢性皮炎

病因病理

由于肌熱當風, 風邪侵入毛孔, 郁久燥血, 肌膚失養, 化成燥証所致, 其表現多為干性型;或因過食肥膩, 辛辣, 酒類等, 以致脾胃運化失常, 生濕生熱, 濕熱上蘊或蘊阻肌膚, 其表現多濕性型

22. 中醫臨床手冊<sup>19)</sup>

皮脂溢出

干性皮脂溢出, 中醫稱為“白屑風”

[治療方法]

養血潤燥, 祛風清熱, 祛風換肌丸, 脂溢性皮炎又名脂溢性濕疹, 主要發生在頭面部皮脂腺較多的部位, 中醫稱為“面游風”由胃經濕熱上蒸而成

[治療方法]

治法: 清熱, 除濕, 散風

芩連平胃散加減, 顛倒散外搽

23. 漢方外科<sup>20)</sup>

白屑風

原因: 肌肉이 뜨거운 사람이 술에 취하였거나 汗出함으로써 風邪에 侵犯되어 血燥로 되어지므로 이 疾患이 形成된다.

[療法]

① 祛風換肌丸, 消風散을 投與하고 洗面할 때에 玉肌散 3匙를 使用한다.

② 皮膚가 乾燥하고 破裂되면 潤肌膏로 맞사 지하는 것이 좋다.

面遊風

原因: 血燥한 사람이 刺戟性이나 肢膀性 食物을 過度하게 攝取하여 胃經에 熱이 蓄積되어 있는 중에 風邪에 感觸되어 血液이 더욱 燥熱하여져서 發生한다.

[療法]

① 搔痒이 甚할 때: 消風散이나 涼膈散에 升麻, 葛根, 羌活, 防風 白芷, 牛旁子 等を 加하여 投與한다.

② 疼痛이 極甚할 때: 黃連消毒散을 投與한다.

③ 患部에는 摩風膏를 塗布한다.

24. 方證新編<sup>21)</sup>

白屑風, 消風散

V. 白屑風의 原因 및 藥物의 빈도수

1. 白屑風의 原因別 빈도수

Table I

No.	原 因	頻度數
1	熱體當風 風熱所化 <sup>9)12)13)14)15)16)17)18)20)23)25)27)</sup>	11
2	肺風熱 <sup>28)10)11)</sup>	4
3	濕熱 <sup>29)</sup>	1
4	肝經風盛 <sup>21)</sup>	1
5	腸胃濕熱 <sup>12)</sup>	1

2. 白屑風의 處方別 頻度數

Table II

No.	原 因	頻度數
1	祛風換肌丸 <sup>9(13)14(16)17(19)20(25)27)</sup>	9
2	消風散 <sup>2(4)5(8)9(10)11(14)25)</sup>	9
3	防風荆芥散 <sup>23)</sup>	1
4	龍腦丸 <sup>23)</sup>	1
5	天麻餅 <sup>23)</sup>	1
6	單若參丸 <sup>22)</sup>	1
7	人參消風散 <sup>21)</sup>	1
8	萬病紫菀丸 <sup>21)</sup>	1
9	天麻消風散 <sup>7)</sup>	1
10	瀉青丸 <sup>21)</sup>	1

### 3. 白屑風의 單方別 頻度數

Table III

No.	單 方	頻度數
1	大黃 <sup>24)</sup>	1
2	薄荷 <sup>22)</sup>	1

### 4. 白屑風의 外用藥 頻度數

Table IV

No.	外 用 藥	頻度數	No.	外 用 藥	頻度數
1	潤肌膏 <sup>9(13)16)17)20)25)27)</sup>	7	18	白屑膏 <sup>23)</sup>	1
2	藜蘆 <sup>8)10)11)15)22)26)</sup>	6	19	塗項膏 <sup>23)</sup>	1
3	藜蘆煎湯 <sup>8)10)11)22)26)</sup>	5	20	蔓荊實膏 <sup>23)</sup>	1
4	白芷 <sup>7)11)14)21)26)</sup>	5	21	白鴿方 <sup>23)</sup>	1
5	零陵香 <sup>7)11)14)21)</sup>	4	22	猪椒根湯 <sup>23)</sup>	1
6	玉肌散 <sup>14)25)</sup>	2	23	沐頭湯 <sup>23)</sup>	1
7	瓦松 <sup>7)11)</sup>	2	24	鷄子沐湯 <sup>23)</sup>	1
8	當歸膏 <sup>14)25)</sup>	2	25	態腦髓 <sup>11)</sup>	1
9	王不留行 <sup>7)26)</sup>	2	26	翠雲散 <sup>25)</sup>	1
10	顛倒散 <sup>12)13)</sup>	2	27	玉肌膏 <sup>16)</sup>	1
11	早蓮膏 <sup>23)</sup>	1	28	翠雲錠 <sup>14)</sup>	1
12	連子膏 <sup>23)</sup>	1	29	厚朴煎湯 <sup>14)</sup>	1
13	甘松膏 <sup>23)</sup>	1	30	桑葉煎湯 <sup>14)</sup>	1
14	龍腦膏 <sup>23)</sup>	1	31	山豆根 <sup>14)</sup>	1
15	松脂膏 <sup>23)</sup>	1	32	桑枝 <sup>26)</sup>	1
16	生髮膏 <sup>23)</sup>	1	33	青黛膏 <sup>12)</sup>	1
17	長髮膏 <sup>23)</sup>	1			



## V. 面游風の 原因 및 藥物의 빈도수

### 1. 面游風の 原因別 빈도수

Table V

No.	原 因	頻度數
1	濕熱 <sup>91, 311(4), 191(20), 127(1)</sup>	6
2	風燥 <sup>133(20)</sup>	2
3	積熱 <sup>141</sup>	1

### 2. 面游風の 處方別 頻度數

Table VI

No.	處 方	頻度數
1	消風散 <sup>143(2), 127(1)</sup>	3
2	黃連消毒飲 <sup>141(20), 27(1)</sup>	3
3	芩連平胃散 <sup>191</sup>	1

### 3. 面游風の 外用藥 頻度數

Table VII

No.	外 用 藥	頻度數
1	摩風膏 <sup>141(20), 27(1)</sup>	3
2	顛倒散 <sup>131(19)</sup>	2
3	潤肌膏 <sup>131(27)</sup>	2

## VI. 考 察

지루 피부염은 피부의 만성 염증성 질환<sup>3)</sup>으로 피지의 분비가 많은 곳(두피, 두피 가장자리, 눈썹, 눈꺼풀, 비구순 주름 부위, 외이도, 귀뒤통리주름부위, 가슴 가운데)에서 주로 발생하고,<sup>26)</sup> 그 부위의 인설과 염증이 특징적인 증상이다.<sup>3)</sup> 또한 연령층 마다 각기 다른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나타낸다.<sup>28)</sup>

유아기에는 頭頂部의 두피에 번들번들한 인

설이 달라붙어 있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乳痂라고 한다.<sup>28)</sup>

소년기에는 조밀한 한개 혹은 여러개의 인설판(patch)이 두피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일시적인 탈모나 크고 달걀모양의 유백색의 인설이 두피와 머리털에 견고하게 붙어 있으며 속눈썹에 백색의 인설이 붙어 있고 다양한 정도의 홍반이 눈꺼풀에 생긴다.<sup>28)</sup>

청장년기에는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의 증상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지루피부염 환자들은 앞고 회고 건조한 인설이 두피에 있고 약간의 소양감을 경험한다. 피지의 분비가 많은 곳(두피, 두피 가장자리, 눈썹, 눈꺼풀, 비구순 주름 부위, 외이도, 귀뒤통리 주름부위, 가슴 가운데)에서 인설과 염증이 생긴다.<sup>28)</sup>

지루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전은 필수적인 인자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확실한 원인은 아니지만 논란의 대상이며 의심이 되는 요소로는 첫째, 상피의 turnover가 증가한다. 둘째, 피부의 상주진균이며 好脂性 다형성 진균인 *Pityrosporum ovale*가 두피에서 많이 발견된다. 셋째, 발汗을 촉진하는 조건에 의해 악화된다. 넷째, 정서적 긴장은 악화요인이다. 다섯째, 우유, 버터, 크림, 치즈, 초코렛 등의 지방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와 관련성이 있다. 여섯째, 지루피부은 때로 파전손씨병, 일측성 척수 공동증(unilateral syringomyelia)등과 동반되어 신경과의 관련이 추측된다.<sup>3), 21), 29)</sup>

東洋醫學에서는 白屑風の 症狀에 대해서 朱<sup>23)</sup>는 머리에 白屑이 생기고 가렵다고 했고 丹溪<sup>24)</sup>는 머리가 가렵고 屑이 있고 머리털이 黃色이 된다고 하였다. 龔<sup>15)</sup>은 몹시 가렵다고 하였고, 李<sup>22)</sup>는 머리에 白屑이 생기고 몹시 가렵다고 하

였다. 王<sup>21)</sup>은 머리를 빗을 때 雪皮가 있다고 하였고 許<sup>11)</sup>와 黃<sup>10)</sup>은 두피가 건조하고 가렵고 백설이 생긴다고 하였다. 陳<sup>25)</sup>과 郝<sup>16)</sup>와 顧<sup>14)</sup>와 陸<sup>27)</sup>은 머리, 얼굴, 귀, 목, 머리털에서 생기는데 초기에는 약간 가렵고 오래되면 점차 白屑이 생기고 점점이 쌓이고 탈락하고 또 생긴다고 하였다. 吳<sup>20)</sup>는 머리와 얼굴에서 생기고 건조하고 가렵고 오래 되면 白屑이 생긴다고 하였고 李<sup>2)</sup>는 머리에 흰비듬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白屑風은 주로 머리에서 白屑이 생기고 白屑이 탈락하고 가렵다. 이것은 자주 피부염의 유아기, 소년기 증상과 유사하며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의 頭部 증상과 흡사하다.

面游風의 증상에 대해서 吳<sup>20)</sup>와 顧<sup>14)</sup>와 陸<sup>27)</sup>은 초기에 얼굴과 눈이 붓고 瘡이 생기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처럼 가렵고 피부가 건조하고 때때로 생선 비늘 같은 白屑이 생기고 심히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이 흐르고 아프다고 하였다.

이상은 지루피부염 중 소년기의 안검염과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의 얼굴 증상과 유사하다.

白屑風의 原因에 대해서 朱<sup>23)</sup>는 肺熱이 頭項을 上衝해서 발생한다고 했고 李<sup>22)</sup>는 濕熱이라 했으며 王<sup>21)</sup>은 肺經의 風이 盛해서 발생한다고 했다. 許<sup>10)</sup>와 黃<sup>10)</sup>과 李<sup>2)</sup>와 金<sup>2)</sup>은 肺의 風熱로 인해 발생한다고 했으며 陳<sup>25)</sup>과 吳<sup>20)</sup>와 顧<sup>14)</sup>와 陸<sup>27)</sup>은 熱性 체질의 사람이 風邪의 침입을 받아 風熱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面游風의 原因에 대해서 吳<sup>20)</sup>는 濕熱과 風燥라고 하였고, 顧<sup>14)</sup>는 積熱이 속에 있거나 맵고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거나 金石과 같은 藥劑를 너무 많이 먹으면 上焦의 氣血이 沸騰해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陸<sup>27)</sup>은 血燥한 사람이 맵고

향기롭고 燥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陽明胃經에 濕熱이 壅結하는데 다시 風邪를 받으면 血이 더욱 燥해져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현재 中國에서 上海中醫學院<sup>17)</sup>과 顧<sup>12)</sup>는 脂漏皮膚炎을 白屑風과 같다고 했고 醫藥衛生出版社<sup>19)</sup>와 顧<sup>13)</sup>는 面游風을 脂漏皮膚炎이라고 했다.

白屑風과 面游風의 原因은 風熱血燥와 脹胃濕熱로 同一하게 생각했다.<sup>12)13)</sup> 治法으로는 風熱血燥한 경우에는 養陰清熱化濕시키는 生地黃, 玄參, 麥門冬, 生石膏, 蛇舌草, 生山查, 側柏葉, 土大黃, 車前草, 處杖 等の 약물을 사용하였고, 腸胃濕熱한 경우에는 清熱化濕通腑시키는 茵陳, 生山梔, 黃芩, 黃柏, 生大黃, 蛇舌草, 生薏苡仁, 車前草, 生甘草 等の 약물을 사용하였다.<sup>12)12)</sup>

24種의 東洋醫學문헌자료 중에서 白屑風의 원인별 빈도수를 조사하여 보았던 바 Table I 과 같이 熱體當風 風熱所化가 11回로 가장 많았고, 肺風熱이 4回, 濕熱, 肝經風盛, 腸胃濕熱이 各1回의 順으로 나타났다. 白屑風의 處方은 總 10種으로 Table II와 같이 祛風換肌丸과 消風散이 各9回로 가장 많았고, 그외 8種은 各 1回의 順으로 나타났다. 單方은 大黃과 薄荷가 各1回였다. 外用藥은 總 33種으로 Table IV에서와 같이 潤肌膏가 7回로 가장 많았고 藜蘆가 6回, 藜蘆煎湯과 白芷 各5回, 零陵香이 4回, 玉肌散, 瓦松, 當歸膏, 王不留行, 顛倒散이 各 2回, 그외 23種은 各1回의 順으로 나타났다.

5種의 東洋醫學문헌자료 중에서 面游風의 원인별 빈도수를 조사하여 보았던 바 Table V에서와 같이 濕熱이 6回로 가장 많았고, 風燥가 2回, 積熱이 1回의 順으로 나타났다. 處方은 總 3種으로 Table VI와 같이 消風散과 黃連消毒飲이 各3回로 가장 많았고, 芎藭平胃散이 1

回的 順이었다. 外用藥은 總 3種으로 Table VII  
에서와 같이 摩風膏가 3회로 가장 많았고 顛倒  
散과 潤肌膏가 各 2回的 順으로 나타났다.

## VI. 結 論

1. 脂漏 皮膚炎은 피부의 만성 염증성 질환  
으로 피지의 분비가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  
고, 그 부위의 인설과 염증이 특징적인 증상이  
다. 또한 연령층마다 각기 다른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나타낸다.

2. 脂漏 皮膚炎의 原因은 不明이나 체질설,  
세균 감염설, 내분비설, 정신적인 원인설, 음  
식물과의 관련성 등이 있으며 이런 모든 요소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3. 白屑風은 지루 피부염의 유아기, 소년기  
증상과 유사하며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의 頭部  
증상과 비슷하다.

4. 面游風은 지루 피부염 중 소년기의 안검  
염과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의 얼굴증상과 유사  
하다.

5. 白屑風의 原因으로는 熱體當風 風熱所化  
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面游風의 原因으로는  
濕熱이 6회로 가장 많았다.

6. 白屑風의 處方은 祛風換肌丸과 消風散이  
各各9회로 가장 많았고, 面游風의 處方은 消風  
散과 黃連消毒飲이 各各3회로 가장 많았다.

7. 白屑風의 外用藥은 潤肌膏가 7회로 가장  
많았고, 藜蘆가 6회, 藜蘆煎湯이 5회였다. 面  
游風의 外用藥은 摩風膏가 3회로 가장 많았고  
顛倒散과 潤肌膏가 各各2회였다.

8. 白屑風의 單方으로는 大黃과 薄荷가 各各  
1회였다.

## 參 考 文 獻

1. 국홍일 : 피부병의 진단과 치료, 서울, 약  
업신문출판국, p.50, 1980.
2. 金定濟 : 東洋醫學診療要鑑, 서울, 東洋醫  
學研究院, pp.298~299, 1983.
3. 大韓皮膚科學會 : 皮膚科學, 서울, 麗文閣,  
pp.88~90, 1985.
4. 宋炳基 : 方證新編, 서울, 東南出版社, p.  
70, 1983.
5. 李常和 : 漢方醫學指南, 서울, 翰林社, p.  
354, 1974.
6. 李惟信 : 臨床皮膚科學, 서울, 麗文閣, pp.  
25~26, 1987.
7. 李麟宰 : 袖診經驗神方, 서울, 發丑出版社,  
卷下, p.130, 1985.
8. 李正來 : 東洋醫藥原理, 서울, 第一文化社,  
p.409, 1990.
9. 蔡炳允 : 漢方外科, 서울, 高文社, pp.286  
~288, 1986.
10. 黃道淵 : 醫宗損益, 서울, 醫藥社, p.194,  
1976.
11.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207,  
1986.
12. 顧伯康 : 中醫外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pp.302~304, 1987.
13. 顧伯華 :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  
技術出版社, pp.533~535, 1985.
14. 顧泄澄 : 醫醫大全(上), 서울, 太醫社, p.  
298, pp.344~345, 1975.
15. 熊廷賢 : 濟世全書, 台北, 新文豐出版社,  
p.482, 1983.
16. 祁 坤 : 外科大成, 台北, 文光圖書有限公  
司, p.212, 1979.

17. 上海中醫學院：中醫外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 229, 1982.
18. 上海中醫學院：中醫外科學，香港，商務印書館，pp. 133~134, 1981.
19. 醫藥衛生出版社編：五官皮膚科 常常見病中醫臨床手冊，香港，醫藥衛生出版社，pp. 71~72, 1986.
20. 吳謙：醫宗金鑑(下)，北京，人民衛生出版社，外科心法要訣，pp. 109~110, pp. 118~119, 1982.
21. 王肯堂：證治準繩，台北，新文風出版社，雜病，pp. 220~221, 1968.
22. 李梴：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pp. 233~234, 1984.
23. 朱橚：普濟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pp. 104~109, 1982.
24.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p. 470, 1982.
25.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p. 257, 1983.
26. 鮑相璣：驗方新編，서울，啟新書局，pp. 32~33, 1986.
27. 陸青節：萬病醫藥顧問，下冊，皮膚科，서울，書宛堂 pp. 4~5, 1978.
28. Thomas P. Habif: Clinical Dermatology, St Louis, The C.V. Mosby Co., pp. 140~143, 1985.